

담배에 관한 저의 의견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다지 주의하지 않아 그 연기가 저에게로 날아오게 될 때는 매우 불쾌하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담배 연기가 싫다고 말하는데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연기를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것이 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연기를 마시지 않으려고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담배를 직접 피우는 사람보다 옆에서 담배가 타는 생연기를 바로 마시는 사람의 암 발생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담배회사에 소송을 거는데 그렇다면 간접흡연에 의해 암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논리 대로라면 간접 흡연자의 피해는 흡연자들이 져야만 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담배에 관해서는 쉽게 묵인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용서할수 없는데 자기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에게 줄수 있는 피해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피울 권리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는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울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흡연자들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경하는 성숙된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